

신림7구역 찾은 오세훈 “정책 재점검 요청” 사업추진 의지

〈서울시장〉

서울시, 하용 용적률 인센티브 2배로 공공 기여율 10%서 3%로 하향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일괄 지원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림7 재개발 구역에 대해 서울시가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신림7구역(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노후도 89%인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탓에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고 이후 방치됐다.

이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했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관악구 신림7 재개발 구역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스

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 지역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 이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 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 지역에 일괄 포함돼 주민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오 시장은 19일 신림7구역 현장을 직접 찾아 노후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 계수 최대 값인 2.0을 적용해 하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린다. 높이 규제 지역 공공 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보다 약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 기여율은 10%에서 3%로 하향된다.

증가하는 분양 수익 만큼 조합원 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공공 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 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 부담이 완화된다.

주민들이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서울시는 통합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기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전향적인 정책 재점검을 정부에 요청했다.

신림7구역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지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질질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h@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학교 ‘반복적 행정업무’ 줄인다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교육지원청으로 공통된 업무 이관

서울시교육청은 19일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에는 올해 신학기에 맞춰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18종의 학교 행정업무 지원 가이드가 담겼다.

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의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학교는 업무 지원에 대한 요청과 협조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통합지원과에서는 채용 공고, 원서 접수, 서류심사, 계약 지원, 일정조율 등 실무 전반을 수행해 학교의 행정부 담을 던다.

학교인력관리, 교육지원 및 안전관리, 학교행정 지원 등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교

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소방합동 훈련 지원 ▲교과서 수급 관리 및 배부 등이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통합 지원 가이드는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밝힌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서울교육의 방향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학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전기·수소차 구매에 6928억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중인 버스. /경기도

경기도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928억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지원 규모인 5687억원 대비 22% 증가한 금액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원으로, 차종별 지원금액은 승용차 최대 830만원, 승합차 최대 910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4950만원, 화물차 최대 1830만원이다.

올해부터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기차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원, 수소버

광명·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경기도, 상·하수도 개선에 6747억

경기도는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고 침수·악취 등 도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6747억원을 투입해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상·하수도 관련 예산은 총 6747억원으로, 지난해 5746억원 대비 1001억원(17.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상수도 832억원, 하수도 5915억원이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광명시와 안양시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323억원을 투입해 수질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노후 정수장 개량에 263억원을 투입해 누수 저감과 지반침하 위험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걷기·체력측정·식사 인증하면 포인트”

서울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

서울시가 새해를 맞아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손목 닥터9988 앱을 활용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 운영에 나섰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는 ▲걷기 ▲체력 측정 ▲잡곡밥 식사 ▲남산 돌레길 걷기 ▲수변 활력거점 방문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생활형 건강 미션으로 구성됐다.

5개 미션별로 인증 시 기본 포인트 합산 최대 9000P, 5개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추가 포인트 1000P가 제공돼 최대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시는 손목 닥터9988의 기존 일일 걷기 미션을 운영한다. 이는 평소 실천하던 하루 8000보(70세 이상 5000보) 걷기를 주 5회(주말 1일 포함) 달성하면 챌린지 성공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자신의 체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 미션도 포함했다. 손목 닥터9988 앱을 통해 예약한 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체력을 측정하고 손목 닥터9988 앱에 연동하면 최대 5000포인트가 지급된다.

체력측정 미션은 측정 방식에 따라 ‘인증형’과 ‘체험형’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인증형은 공식 인증서(1~6등급)가 발급되며, 완료 시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체험형은 공식 인증의 부담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체력을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이며 완료 시 1000포인트가 지급된다.

헬당 관리와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되는 잡곡밥 식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통쾌한 한끼’ 인증 미션도 진행한다. 서울시 내 잡곡밥을 제공하는 식당을 찾아 이용한 후 식사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2000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번 챌린지는 예산 소진 시까지 손목 닥터9988 앱 이용자 선착순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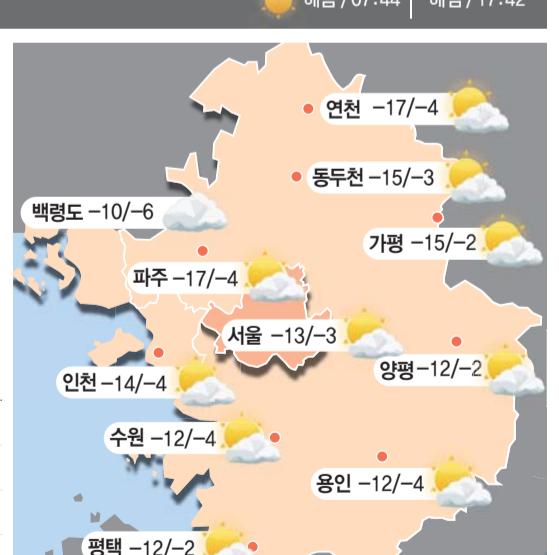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뜰/07:44 해짐/17:44

1월
20일(火)
음력: 12월 2일

수도권 날씨
-13~-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시위로 수천 명 사망, 책임은 트럼프에 있어”
▲다카이치 日 총리 조기 총선 강행 전망에…여론 50%는 내각 해산 반대

/사진 뉴시스

▲中, 작년 경제성장을 연 5.0% 목표 달성…내수 침체 속 4분기는 4.5% 그쳐
▲독일, ‘징병 신체조사 설문’ 반발 확산…신규 입대 부족에 軍 고령화 가속

▲스페인 안달루시아서 고속열차 연쇄 추돌… 최소 21명 사망·100여 명 부상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대법원, 관세 정책 뒤집을 가능성 낮다” 주장